

들어가며: 정성 없는 선물, 형식적인 친절, 마음 없는 칭찬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.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?

1. 공경과 열시 사이

1.1. (관찰) 그들의 행동: 성전을 완공해서도 특별히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자 백성들의 신앙이 회의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. 먼저는 예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,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꼬집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 구체적으로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?

- 8절:
- 13절:

1.2 (관찰) 그들의 말: 그들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,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?

- 7c절:
- 12절:

1.3. (관찰) 그들의 태도: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행동들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?

- 6절:

1.4. (나눔1) 제사에 대한 부실한 제사장들의 태도와 행동의 문제는,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문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요즘 당신의 주일 예배, 헌물, 일상에서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? 특별히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이나 또는 감사의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.

1.5. (나눔2)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요 주인이십니다(6). 그 분은 우리가 그분을 무겁게 여기며 존중해드릴 것을 원하시며, 기쁨과 감사로 우러나오는 진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. 그러한 예배를 위해 일상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또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서 특별히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

2. 높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

2.1. (관찰)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일종의 종교적 거래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지자, 하나님의 탄식은 깊어갑니다. 10절을 읽고 문자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지 이야기 해 봅시다.

2.2. (관찰) 밤의 어둠이 깊은 만큼 새벽빛이 찬란하듯,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선언됩니다. 아래 구절을 찾아봅시다.

- 1: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() ()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()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()중에서 ()
- 1:14b ...나는 ()이요 내 이름은 ()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

2.3. (나눔3) 이제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로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각처에서 드러내고 높이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.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위해, 우리의 일상에서 특별히 회사와 가정에서 시작할 새로운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

🙏 **기도:** 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좇아 삶의 예배를 살도록 인도하소서.